

歐美列強의 中國侵略과 朝鮮의 反應

河 政 植 *

I. 머리말

II. 第一次 阿片戰爭

III. 第二次 阿片戰爭

IV. 국내 상황과 太平天國

V. 위기 인식과 대응의 배경

1. 燕行情報

2. 權力構造와 政治狀況

VI. 맺음말

I. 머 리 말

개항 이후 조선사회는 구미열강과 본격적으로 遭遇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구미열강은 조선사회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구미열강이 危機視된 것은 그들이 우수한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阿片과 基督教을 전파시키면서 교역을 요구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은 구미세력과 본격적으로 조우하기에 앞서서 위기로 다가오는 구미열강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와 그 대처능력을 갖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겠다.

서양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략한 두 차례의 아편전쟁에 대하여, 체제의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던 동아시아 각국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였는가에 따라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의 전개 양상의 차이가 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각국의 개항의 성격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中國과 日本이 두 차례의 아편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80년대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 연구는 1·2차 아편전쟁에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도 있고¹⁾ 19세기 중엽

* 숭실대 사학과 교수.

1) 閔斗基〈十九世紀後半 朝鮮王朝의 對外危機意識－第一次·第二次中英戰爭과 異樣船 出沒에의 對應－〉(《東方學志》52輯, 1986.)

三好千春〈兩次アヘン戰爭と事大關係の動搖〉(《朝鮮史研究會論文集》27輯, 1990.)

이후 조선의 대외위기의식의 일부로서 고찰한 것도 있다.²⁾ 그러나 앞으로도 이 문제는 보다 집중적으로 정치하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체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던 조선왕조는 老大國 清朝가 겪는 서양의 침략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가를 연행사절의 정보를 통하여 추적, 정리하기로 한다. 제일차 아편 전쟁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조명이 좀더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또 異樣船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별개의 주제로서 검토되기 때문이다. 조선지배층이 太平天國과 국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위기 대응 패턴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또 대외정세의 인식과 대응은 관련 정보의 성격은 물론 조선왕조의 정치상황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므로 이를 인식과 대응의 배경으로 정리하였다.

II. 第一次 阿片戰爭

清朝가 아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1832(純祖 32)년에 燕行했던 동지사 서장관 金景善의 燕行錄에 전하고 있다.³⁾ 즉 그는 塘報에서 阿片吸食을 엄금해야 한다는 御史 馬光勳의 上奏를 읽었으며, 清朝는 근래 아편을 엄금하는 上諭가 자주 있었으나 그 효과는 없고, 특히 廣東과 福建 등지에서는 將兵들의 吸煙이 늘어나고 있다고 적고 있다.⁴⁾

이후 清朝에서 아편 수입의 증대로 인한 害毒의 확산, 銀價가 등귀,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의 수립, 제일차 아편전쟁의 경과 등에 관련된 정보는 燕行使節에 의하여 조선 정부에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1838(憲宗 4)년 이후 燕行使節을 통하여 보고된 청조의 阿片 관련 정보와 제일차 아편전쟁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原田環〈十九世紀の朝鮮における對外的危機認識〉(《朝鮮史研究會論文集》21輯, 1984.)

拙稿 (1)〈朝鮮官人の 太平天國觀〉(《崇實史學》3輯, 1985)

_____, (2)〈太平天國에 대한 朝鮮政府의 認識〉(《歷史學報》107輯, 1985.)

_____, (3)〈燕行情報와 朝鮮王朝의 太平天國 認識의 政治的背景〉(《歷史學報》145輯, 1995.)

_____, (4)〈太平天國과 1850~60年代初 朝鮮王朝의 危機意識〉(《東方學志》87輯, 1995.)

김태웅〈서구자본주의의 침투와 위기의식 고양〉(《한국사》10. 한길사, 1994.)

3) 金景善《燕轅直指》卷五. 留館錄 下. (민족문화추진회《국역 연행록선집》11, 1982.) pp.63~64.

4) 이들 사행의 복명이나 문견별단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이들 사행이 1833년 2월에 북경을 떠나기에 앞서 馳啓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실은 조정에 보고되었을 것이다.《純祖實錄》33年 2月 丁卯條.

1) 1838. 8. 15. 奏請兼謝恩行 書狀官 李源益 : 鴉片 때문에 銀價가 昂貴하여 銀貴錢賤에 이르렀고 各省 병정의 거개가 浸染되었다 한다.⁵⁾

2) 1839. 3. 24. 冬至兼謝恩使行 書狀官 李時在 : 鴉片은 西洋에서 유입된 것으로 그 해독이 심하여, 清朝는 아편 금지를 위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許乃濟와 黃爵滋는 상반되는 아편대책을 上奏하였다.⁶⁾

3) 1840. 3. 25. 冬至兼謝恩行 書狀官 李正履 : 皇帝는 막대한 양의 銀貨가 西洋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奇邪巧侈之物의 流入’을 禁하고 있다. 서양의 噶喇吧國은 火器가 특히 巧毒하며, 邪敎를 전파하여 海外的 紅毛·呂宋諸島가 이미 邪敎를 믿게 되었다. 年前에 噶般이 忠淸道 洪州에 와서 交易을 요구했었다(1832년의 일이다). 이들이 다시 오면 곧 축출할 수 있도록 海防을 엄히 해야한다.

同首譯 金相淳 : 중국에 온 西洋人은 邪敎를 傳播하여 인심을 혼란케 하고 鴉片을 가져와 ‘戕害身命’한다.⁷⁾

4) 1940. 8. 25. 進香使 完昌君 李時仁 : 延吉利國과 清朝의 군사 충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확실하지 않다.⁸⁾

5) 1841. 3. 19. 進賀謝恩兼冬至行 正使 朴晦壽 : 噶喇吧國이 亂을 일으켰는데 그 勤平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대단한 걱정거리는 아니나, 騷擾는 적지 않다.⁹⁾

同 書狀官 李繪九 : 전쟁이 일어난 것은 噶喇吧國人에게 交易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定海가 함락되고 江蘇·山東·直隸·奉天 등지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官兵이 많이 상했고 資財의 掠奪, 婦女姦淫 등의 횡포가 있었다. 鄧楨廷·林則徐 등이 革職되고 海防 經費로 엄청난 銀이 들어가고 있다. 講和는 금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 한다.¹⁰⁾

6) 1842. 4. 9. 冬至兼謝恩行 書狀官 韓必履 : 작년 2월 廣東總督 琦善이 香港을 噶夷에게 함부로 내주어 處罰받았다. 廣東·浙江·福建 등지는 噶夷가 占據하고 있으며, 定海와 臺灣 外洋에서의 전투에서 千餘 혹은 數百의 噶夷를 斬하였다.¹¹⁾

7) 1842. 12. 4. 賚咨官 李陞 : 전쟁이 끝나고 噶夷와 通商章程(南京條約)을 맺었다.¹²⁾

8) 1843. 3. 29. 冬至兼謝恩行正使 興寅君 李最應 : 이미 和親하였다고 들었으며 ‘侵漁之弊’는 없다.¹³⁾

9) 1844. 2. 6. 告訃使行 書狀官 徐相教 : 앞서는 噶喇吧에게 廣東 한 곳에서만 互市를

-
- 5) 《同文彙考》補編續〈使臣別單〉奏請兼謝恩行書狀官李源益聞見事件.
 6) 《同文彙考》補編續〈使臣別單〉冬至兼謝恩行書狀官李時在聞見事件.
 7) 《日省錄》憲宗6年 3月 25日.
 8) 《承政院日記》道光20年 8月 25日.
 9) 《日省錄》憲宗7年 3月 19日.
 10) 《同文彙考》補編續〈使臣別單〉進賀謝恩兼冬至行書狀官李繪九聞見事件.
 11) 《日省錄》憲宗 8年 4月 9日條.
 12) 《日省錄》憲宗 8年 12月 4日條.
 13) 《日省錄》憲宗 9年 3月 29日條.

허락했는데 騷擾 후에는 네 곳(四處)으로 늘어났다. 이로부터 ‘侵擾之端은 없고 中外晏如하다’¹⁴⁾

10) 1845. 3. 28. 奏請兼謝恩冬至使行 正使 興完君 李最應 : 中國에 아무 일이 없다.¹⁵⁾

11) 1848. 3. 24. 冬至兼謝恩使行 首譯 李尙迪 : 아편 해독의 전파가 前年에 비해 훨씬 심해져서 이제는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고 銀貨가 이 때문에 消融되고 있다. 刑部나 各省이 아무리 단속해도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효과가 없다.¹⁶⁾

朝鮮政府는 1830년대 초부터 淸朝 中國에 대량의 阿片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편 吸入者가 늘고, 銀價가 騰貴하는 등 각종 해독이 만연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또 그 아편을 중국에 가져오고 銀을 가져가는 것이 서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第一次 阿片戰爭의 契機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청조의 아편대책이 영국과의 사이에 무력 충돌로 발전하였고, 이에 패한 청국이 영국과 和約을 맺어 5港을 개항하지 않을 수 없었음도 파악하고 있었다.

위에서 정리한 정보는 지나치게 소략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조선정부가 위기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위의 3)은 우수한 무기를 지닌 서양 특히 영국이 邪敎를 전파하여 인심을 혼란케 하며 아편을 가져와 중국인의 목숨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서양은 다름 아닌 8년전에 이양선을 몰고 洪州에 나타나 교역을 요구했던 바로 그들이라고 경고하면서 海防을 주장하였다. 위기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했던 것이다. 李正履의 경고를 입증이나 하듯 그해 연말에 영국 군함 두 척이 濟州道의 加波島에 나타나 發砲하고 선원 40여 명이 내려와 소를 빼앗아간 사건이 발생했다.¹⁷⁾ 따라서 영국의 무력 침략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강해졌을 것이고, 중·영간의 전쟁은 조선정부의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영간의 무력 충돌에 대한 첫 보고인 4)는 “그곳에 요즘 난리가 있었다는데 들어본 일이 있는가”라는 憲宗의 물음에 대한 답이다. 이를 보면 현종이 어떤 다른 경로로 중·영간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며,¹⁸⁾ 현종은 중국 정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淸朝의 패배로 南京條約이 체결되고 청조가 개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제일차 아편전쟁의 경과와 현황은 약 반년 후에 5)로 구체화되

14) 《日省錄》憲宗10年 2月 6日條.

15) 《承政院日記》道光 25年 3月 28日條.

16) 《同文彙考》補編續〈使臣別單〉冬至兼謝恩行首譯李尙迪聞見事件.

17) 《承政院日記》道光20年 12月 30日條.

閔斗基, 앞 논문 p.263.

18) 閔斗基, 앞 논문 p.262.

기 시작하여 다음 해의 6)과 7)로 보완되었다. 이들 5) 6) 7)의 정보는 일부 부정확한 사실도 포함하고 있지만 사태의 진전과 그 의미를 읽어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라고 보인다.

조선의 지배층이 청조의 패전을 심각한 사태로 인식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통상을 허락하고 和親을 하였다는 것은 곧 清朝가 아편과 邪教를 전파하는 夷에게 敗北했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하여 夷의 직접 침입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중국에서의 洋夷의 동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8) 9) 10)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조선 지배층의 청조 사태에 대한 대응이라 볼 수 있다. 8)을 통하여 위기의식은 완화될 수 있었고,¹⁹⁾ 9)와 10)을 통하여 완화된 위기의식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아편문제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11)의 정보는 아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확신을 더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아편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건이 발생했다. 11)의 보고가 들어온 이틀 후인 3월 26일에 중국에서 阿片 吸煙道具를 가져오던 畫員 朴禧英이 義州에서 체포된 것이다. 박희영의 처리 문제는 조선정부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遠島流配와 滅死爲奴로 처분되었다.²⁰⁾ 이는 아편 흡연도구의 반입이 단순한 금수품목의 국내 반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박희영 사건은 아편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아편에 관련된 정보는 이후 철종대에 가서도 입수되고 있으며 조선 정부의 이에 관한 관심 표명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국과 영국이 무력충돌이라는 심상치 않은 사태에 이르기까지 보인 관심과 그 결과로 얻은 知見에 비하면 그 대응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조선의 지배층이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는 연행사인의 정보 말고도 또 있었다. 海防을 논한 중국 지식인의 저술이 간행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에 전해지고 유포되었던 것이다. 1842년, 魏源의 《海國圖志》初刊本 50권이 간행되었다. 아편전쟁의 패배를 반성하고 서양 문명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이를 받아들여 外侮를 막자는 것이었다. 유사한 동기에서 徐繼畬는 《瀛環志略》을 저술하였다. 魏源은 《海國圖志》의 서문에서 그 저술 목적을 洋夷의 長技를 배워 海防으로 쳐들어오는 양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었다. 그는 먼저 서양의 지리와 역사를 소개하고, 이어서 〈籌海篇〉을 두어 海防思想을 서술하였다.

《海國圖志》는 1845년에 조선에 전래되었다. 奏請兼謝恩·冬至使行의 副使 權大肯이

19) 閔斗基, 앞 논문 p.264.

20) 이 사건의 개요와 의미에 대해서는 閔斗基, 앞 논문 pp.265~266 참조.

수입해 온 이 책은 상당히 널리 읽힌 것으로 보인다. 憲宗 역시 이 책을 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海防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대책의 수립이 이루어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 책은 이후 여러 사행에 의해서 상당량이 수입되었고, 또 국내에서 그 抄略本이 만들어졌으며, 《海國圖志》를 토대로 만든 세계 지리서가 나오기도 했다.²¹⁾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도 해방이나 위기 대응책의 논의가 일어나지는 않고 말았다.

조선정부는 중국을 무력으로 침략하는 서구세력에 대하여 왜 이처럼 무관심²²⁾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우선 정보의 부정확한 부분과 희망적 관측을 중심으로 사태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정보4)의 지나치게 간략한 내용은 시기적으로 전란을 제대로 견문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지만, 이는 전란이 크지 않음을 암시할 수 있다. 5)는 소요가 적지 않다고 하면서도 대단한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병기하였기 때문에 4)의 암시를 확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금년 안으로 講和가 이루어지리라 전망도 전쟁이 대수롭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6)의 후반부는 사실과 어긋나는 부정확한 내용인데 이를 통하여 전황이 清朝에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준다. 7)은 南京條約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청조의 패배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8) 역시 화친했는데 ‘侵漁之弊’가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안도감을 갖게 할 수 있었다. 8)에서의 안도감은 9)의 구체적 사실에 의하여 재확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暎咭喇國에 네 곳을 열어서 통상을 허가했는데도 ‘侵擾之端 없이 晏如’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투철하지 못한 인식도 조선정부로 하여금 영국의 무력 침략을 위기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이 교역의 불허에 따른 갈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화친하여 교역을 허가한 것으로 전쟁의 원인은 해소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특히 ‘侵漁之弊’가 없다는 전쟁의 결과도 이러한 사태 인식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쟁의 패배가 영토적 지배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²³⁾

여기다 청조 지배층의 상황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일차 아편전쟁은 中國史에서 근대의 개시로 보는 것이 정설화되고 있지만, 전쟁의 패배를 충격이나 위기로 심각하게 인식한 것은 극소수였다. 지배층의 대다수는 이 전쟁이 국지적인 전투였고, 따라서 일정한 양보에 의한 회유책으로 사태를 해결했다고 인식했던 때문이다.²⁴⁾ 이러

21) 李光麟 〈海國圖志의 韓國傳來와 그 影響〉 (李光麟 《改訂版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74.) 참조.

22) 李光麟 《韓國史講座 5. 近代篇》 一潮閣, 1982. p.9.

23) 閔斗基, 앞 논문 p.264 참조.

한 청조의 상황 인식은 아편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 사실은 조선 사신이 수집한 정보에 반영되었다. 당시 서양의 실재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위기시하여 해방을 주장한 것은 임칙서와 위원을 비롯한 국히 일부의 선구적 지식인과 판료였다. 그러나 청조가 서양의 우수한 군사기술을 도입하자는 洋務運動은 1860년대 후반에야 시작된다.

Ⅲ. 第二次阿片戰爭

第二次 阿片戰爭은 조선이 서양의 군사력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게 했고 조선 지배층의 위기의식을 고양시켰다. 이하 그 경과를 정리해보자.

英·佛聯合軍은 1857년 廣州城을 함락했고, 58년에는 天津 함락을 통해 天津條約을 체결하였다. 59년 天津條約의 批准을 둘러싸고 영·불과 淸 사이에 다시 무력 충돌이 발생, 영·불군은 일단 敗退하였다. 1860년 6월, 大沽近海에 도착한 영 불연합군은 大沽砲臺를 함락하고 이어 天津을 점령한 다음, 北京을 점령했다. 淸朝의 거의 무조건 항복이었고, 北京條約이 체결된다. 천진조약에 이은 북경조약으로 중국시장은 서양열강에게 전면적으로 개방되다시피 되었고 중국의 半殖民地化는 더한층 深化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서양열강의 동태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1858년 정월,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되었다. 동년 12월초에는 賡咨官이 영·불연합군의 天津 함락 사태와 그 이후의 淸朝의 방비태세를 備邊司에 手本으로 보고하였다. 이듬 해인 59년에 귀국한 冬至使行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보고하고 있다. 특히 書狀官의 別單은 앞서의 賡咨官手本에는 없었던 57년의 영·불연합군에 의한 廣州城 점령과 兩廣總督 葉明琛이 포로가 된 일까지 언급하고 있다. 首譯도 太平天國의 흥기와 淸朝의 官紀 문란, 捻軍의 투쟁, 그 틈을 이용하고 있는 서구의 위협 등, 일련의 사태를 상호 연관시켜 파악한 후 이를 정리하여 별단을 제출하고 있다.

1860년에는 열강의 동태에 대한 보고가 간절해진다. 3월에 귀국한 동지사 李埈는 “昨夏에 啖咕喇가 패하여 물러갔고 僧 王格·林沁이 天津 등지의 방비를 엄히 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라고 복명한다. 59년의 天津條約 비준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전투와 그 이후의 경과를 전하고 있는 이 정보로 조선정부는 安堵感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잠시 열강의 움직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던 조선정부의 태도는 1860년

24) 堀川哲男《中國近代の政治と社會》法律文化社, 1981, 京都. 第一章과 第九章 참조.

12월초, 北京 陷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나서 급전한다. 賚咨官 金景遂가 비변사에 보내온 長文의 수본은 이 사태를 소상하게, 그리고 거의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 金은 이 수본에서 영·불연합군²⁵⁾의 天津 함락에 이은 北京 함락의 경과, 咸豐帝의 熱河 移蹕, 영·불연합군의 방화와 약탈, 英·佛·美·俄의 사절이 요구하는대로 新約(天津·北京條約)을 체결한 경과 및 그 조약의 내용, 전란으로 인한 민심의 불안 등을 정리하고 있다. 이어서 南賊(太平天國)을 비롯한 각지의 賊匪에 대한 肅清의 期約은 杳然함도 함께 전하고 있다.²⁶⁾

조선정부는 驚愕했고 備邊司의 啓言에 따라 熱河에 問安使를 파견하기로 결정한다.²⁷⁾ 신속한 대응이었다. 문안사 파견을 결정한 다음 날도 조선정부는 대책회의를 열었다. 哲宗은 대신들에게 中國의 일은 참으로 큰 걱정이라 하면서 중국의 사태가 危機임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臂齒의 관계인 燕京이 洋夷의 慍悍한 武力으로 함락되어 위태로우니 朝鮮도 安全할 수 없고, 洋夷는 교역뿐 아니라 倫常을 망치는 術(基督教)을 널리 전파하려하니 朝鮮도 그 害를 면하기 어려운 데다, 洋夷는 一瞬에 千里를 갈 수 있는 우수한 선박까지 가졌다는 것이다. 이어서 대신들에게 대응책을 내도록 했다.²⁸⁾

이에 좌의정 趙斗淳은 “外敵을 막으려면 內修를 해야하고, 內修의 方策은 財力과 兵力을 충실히 하는 것인데, 이는 시간을 요하므로 천천히 해나가자”고 하였다. 국왕은 淸國이 당한 困辱을 상기시키며 다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를 촉구한다. 조두순은 中國이 곤욕을 당하는 것은 天地의 運勢라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책은 國王의 修養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君主의 自修가 대응책이 될 수 없음은 금방 밝혀진다. 해가 바뀌어 61년 1월 29일, 조선정부는 다시 대책회의를 열어야 했다.²⁹⁾ 北京 함락의 소문이 널리 퍼져 民心이 騷動하고 닥쳐올 患難을 피해 落鄉하는 朝臣까지 나왔다. 기독교신자를 찾아가 洋夷 來襲 후의 안전을 부탁하는 이도 나왔다고 견문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도달한 결론은 地方官의 擇人에 신중을 기하여 民心을 안정시키자는 判中樞府事 朴晦壽의 종래의 제안이었다. 朴은 北京事態를 ‘臂齒之慮’라 인식하고 있었다. 外侮를 막기 위해 內修策을 채택했고, 內修의 구체적 방책은 有能한 人材를 守令方伯으로 임명하는

25) 金景遂는 英·佛聯合軍을 英·佛·美·俄의 四國聯合軍으로 把握하고 있다. 그에 앞선 보고들이 英·佛聯合軍을 단지 英夷나 英船이라 했던 것과 대조된다.

26) 《日省錄》哲宗11年 12月 9日. 〈賚咨官金景遂以手本報備局〉.

27) 《日省錄》哲宗11年 12月 9日.

《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 哲宗實錄 의 同日條.

28) 《承政院日記》咸豐10年 12月 10日.

29) 《日省錄》哲宗12年 正月 29日.

《承政院日記》咸豐11年 正月 29日.

일이었다.

그런데 61년 3월에 동지사 申錫愚가 귀국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복명하였다. 그는 北京 출발에 앞서 諺啓를 내었음을 확인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浮刻시킨 후 정세를 분석한다.

洋夷와 억지로 和親하였고 外寇가 熾盛하여 皇駕가 北狩하기에 이르렀으니 天下가 어지럽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城關과 宮府, 市廩과 閭里는 편안하기가 예전과 같고 將兵이 駐屯해 있는 郊壘는 氣色이 整頓되어 泰然하며, 賊이 近省에 숨어있어도 防禦에 침착함과 餘裕가 있는데, 이는 民心이 일에 앞서 飄亂스럽지 않고 朝廷의 計略도 期限을 주어 窘塞하지 않게 하는 때문이다.³⁰⁾

그는 또 大亂의 여파가 조선에 미칠 수도 있음을 논한다. 즉 서양열강이 勢를 타고 동쪽으로 朝鮮을 침범해 올(因勢東犯) 가능성과 太平軍이 조선의 서쪽 변경을 침략해 올 가능성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국내에서 洋夷나 賊匪와 內應하는 무리가 없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天下가 어지러운 지금, 걱정거리인 外寇가 아니고 內治의 紊亂에 있으므로, 민심을 안정시키고 변경의 방어를 충실히 하자고 제언했다.³¹⁾ 그의 위기 극복책도 결국 內修였다. 그런데 申錫愚의 中國情勢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은 太平軍의 조선 변경 침범에 대한 위기감을 조선지배층이 이미 갖고 있었고, 이 위기감은 北京陷落에 대한 충격으로 상승작용을 하여 나타났다는 점이다.

조선정부는 신석우의 정세 분석을 통하여 위기감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熱河問安使行은 6월에 귀국하여 복명하는데, 그 복명이 여유 있게 이루어진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熱河問安使 趙徽林의 복명에서 서양열강에 대한 위기감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清朝의 心腹之患을 賊匪(太平軍과 捻軍)로 보고 있는 것이다. 조취림은 賊匪를 금방 진압하기는 어렵지만 清朝가 잘 방어하고 있다고 했다. 또 洋夷도 거리낌없이 北京을 왕래하지만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다.

훗날 史官은 問安使行의 복명 내용을 아래와 같이 縮約하였다.

各省에 賊匪가 猖獗하여 창졸간에 勦滅하기는 어려우나, 總督에 적합한 사람을 얻어 防禦가 甚히 堅固하며, 賊도 역시 兵卒을 거두어 自守하고 있는 形便이라 敢히 侵掠하지 못할 것이다. 洋夷는 別로 侵擾하는 事端이 없는 까닭에 都城民은 모두 安堵하고 있다.

30) 《哲宗實錄》卷十三. 哲宗12年 3月乙卯.

31) 《日省錄》哲宗12年 3月 27日. 〈冬至正使申錫愚復命〉.

《承政院日記》咸豐11年 3月 27日.

이번의 別行은 格外的 恩賞이 있었음을 보아, 皇帝가 特別한 優禮의 뜻을 보인 것을 헤아릴 수 있다. 또 朝士가 전하는 바로는 ‘이번 使行은 列國에서는 없었고 朝鮮에서만 홀로 있었으니, 一心으로 事大하는 精誠은 깊이 欽歎할 만하다. 참으로 禮義之邦이다’라 하였다 한다.³²⁾

이에 대하여 哲宗은 艱危之時를 당하여 한 번의 問安之禮는 事大하는 道理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滿足하고 있다. 對外的인 危機를 事大外交를 통하여 극복하였다는 안도감의 발로였다.

1862년 7월, 정사 徐憲淳은 洋夷의 실체에 대하여 복명하였다. 서양열강이 제2차 아편전쟁을 통하여 확보된 이권의 유지와 그 확대를 위하여 中立이란 허울을 벗고 淸朝의 太平天國 진압을 돕게 된 이른바 常勝軍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 그 하나이다. 또 하나는 洋人이 中國과 형제를 칭하면서 北京에서 제멋대로 활동하고 있는 바, 이는 참으로 心腹의 疾患이라서 太平軍 보다 더 큰 걱정거리라고 하였다.³³⁾ 그러나 서헌순의 상황 인식은 조선정부의 안이하고 타성적인 대응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였다. 事大外交의 성공으로 洋夷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고 믿겨진 철종은 이 부분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써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IV. 國內狀況과 太平天國

서양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위기를 事大外交를 통한 藩屬秩序를 이용하여 대응한 조선왕조에 있어서 淸朝의 권위와 안정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제이차 아편전쟁의 충격이 컸던 것은 바로 청조의 권위와 안정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太平天國과 捻軍의 투쟁은 그것이 청조의 국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지배층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 역시 청조의 안정과 권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에서였다. 1862년의 대규모 농민항쟁을 격발시키는 불안 요인을 지니고 있던 조선왕조로서는 청조의 내란도 결코 강 건너 화재일 수 없었다.

조선 지배층은 太平天國에 대하여 십여 년 동안 이를 ‘流賊’으로 규정하고 과소 평가하였다. 그러나 제이차 아편전쟁을 계기로 태평천국을 과대 평가한다. 1860년대에 오면 객관적 정세로는 태평군의 열세가 분명해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세도권력이 실제로는 태평천국을 위기시하여 암암리에 이에 대응하면서도, 정부의 공식 입장은 태

32) 《哲宗實錄》 哲宗12年 6月丙子.

33) 《日省錄》 哲宗13年 7月 2日. 〈進賀謝恩正使徐憲淳復命〉.

평군을 과소 평가한 정보 조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조선 지배층이 국내 상황과 태평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간단히 정리하기로 한다.

1850년대에 조선 지배층은 국내의 상황을 危機로 인식하고 있었다.³⁴⁾ 哲宗 5년(1854)에는 최고실권자인 金左根이 還穀의 폐단을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一大改革을 주장하고 있다.³⁵⁾ 또 다음 해 5월에는 廣州留守와 水原留守에 原任大臣 李憲球³⁶⁾와 金道喜³⁷⁾를 각각 임명하였다. 두 지방관을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한 거물급 관료로 임명한 이 조치 역시 지난 해에 수도의 방어를 위하여 漢城의 배경이 되는 지방인 水原과 廣州를 重視해야 한다는 김좌근의 건의에 따른 조치였다.

이와 함께 1853년의 冬至使 파견부터 55년까지 3년 동안, 정치적 비중이 높은 인물로 正使를 선발하고 있다. 사신 임명에 이처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역시 집권 세도 세력의 위기의식의 소산으로 보인다. 53년의 冬至使는 尹致秀, 54년의 동지사는 金鐔, 55년에는 陳慰進香使에 徐憲淳, 동지사에 趙得林이 선발되고 있다. 이들은 官職 經歷도 華麗하지만, 한결같이 備邊司에서 核心 堂上職을 장기간 맡고 있다. 특히 이들은 4인 모두 핵심 당상 가운데서도 有司堂上을 역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도정치의 深化期에 유사당상의 정치적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권 세도가의 의도와 함께 이들에 대한 신임을 알 수 있다.

金左根과 그 가문의 절친한 협력자이자 가장 유능한 실무관료로 평가되는 鄭元容도 대외정세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陳慰進香兼謝恩使行의 정사 徐憲淳은 임무를 마치고 北京을 출발하기에 앞서 1855년 12월 23일, 역관편으로 書信을 보냈다. 정원용은 서희순의 이 서한을 읽고나서, 현시국을 “天下大亂”이라고 진단하였다.

南方의 兵亂은 庚戌年(1850)에 일어나서 지금 六七年이 되었으니 天下는 大亂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사람이 稱王하고 누가 起兵했는지 漠然하여 알 수 없다. 비록 使行의 往來가 있다하나 모든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번 徐上使의 書信을 보아도 이처럼 模糊하여 믿을만한 말이 없지 않은가. 이는 我國이 海隅의 邦이어서리라.³⁸⁾

太平天國에 대한 그간의 정보가 단편적이었고 특히 太平軍의 흥기 사실이 兩廣·湖南三省의 제반 민중투쟁과 함께 모호하게 전해져서 상당한 혼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용은 太平天國의 흥기를 庚戌(1850)年으로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또 태평군의 稱

34) 吳洙彰〈主要政策의 實狀〉위의 朝鮮政治史 下. 참조.

35) 《承政院日記》咸豐4年 2月 15日甲申.

36) 《哲宗實錄》哲宗6年 5月丁卯.

37) 《哲宗實錄》哲宗6年 5月丙子.

38) 鄭元容《袖香編》卷四.〈使臣玉河書〉.

王 사실은 1857년에 처음 전해지는데도³⁹⁾ 이미 이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鄭元容의 정보 분석 능력이 우수함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실권자의 최측근인 정원용의 정보량이 國王 보다 더 많다는 반증도 될 것이다. 정원용은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현재의 정세를 ‘天下大亂’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역관편으로 보낸 서한에서 徐憲淳은 清朝의 병란을 심각한 것으로 전하고 있지만,⁴⁰⁾ 구체적인 사실을 전하지는 못하였다. 그나마 哲宗에게 복명할 때는 “賊勢는 이미 그 銳鋒이 꺾이어서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간략하게 낙관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⁴¹⁾

지금까지 살펴 본 朝鮮政府의 危機 認識과 그 대응 조치는 太平天國에 대한 인식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52년의 謝恩正使인 徐念淳의 보고는 太平軍을 明末의 流賊 李自成的 무리와 흡사하다고 危機視하였다. 이는 太平軍에 의해 清朝가 전복될 수도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후 삼년 동안 赴燕使行의 선발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이다. 太平軍이 南京을 점령하여 定都하고 국가체제를 갖추었다는 상세한 보고를 철종이 접한 것은 54년 3월의 일이다. 사안의 성격상 이 정보는 사신의 귀국 보다 최소한 한 달 이상 앞서서 들어왔을 것이다. 이때의 정사는 세도권력의 신임이 두터운 尹致秀로 특별히 가려뽑은 사신의 한 사람이다. 최고실권자가 還轍의 개혁문제를 제기하고 首都 방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 南京 함락의 사실을 알고나서 취한 조치들이다. 세도 권력이 清朝의 사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使臣들은 한결같이 太平軍을 ‘揭竿之徒’ ‘流賊’ ‘烏合之衆’ 등으로 과소 평가하면서 清朝가 이를 곧 平定하리라는 낙관적 전망만을 내놓고 있었다. 위의 鄭元容의 예에서 보았듯이 국왕은 정보의 일부를 차단 당하고 있었다. 이는 곧 국왕이 받은 복명의 내용은 사전에 세도권력에 의해 調律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국내의 안정을 해칠만한 정보는 일정 부분이 차단되거나 정보의 해독이 歪曲되어 국왕에게 보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哲宗도 이 점을 인지하게 되어서, 57년에는 王 자신의 측근을 使臣으로 파견하였지만 세도권력의 壁을 넘을 수는 없었다.⁴²⁾

1862년 2월, 晉州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이를 도화선으로 농민항쟁은 三南一帶에 만연되어 봉건지배체제를 위협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우선 按覈使와 宣撫使, 暗行御史 파견 등으로 긴급히 按舞策을 강구했다. 또 한편으로는 晉州按覈使 朴珪壽의 건의

39) 《日省錄》 哲宗8年 3月 24日.

40) 鄭元容《袖香編》卷四〈使臣玉河書〉.

41) 徐憲淳의 書翰 내용과 복명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哲宗이 情報의 一定部分으로부터는 遮斷되고 있었다는 例證이 될 것이다.

42) 拙稿, (4) pp.34~39.

에 따라 5월 하순에 釐整廳을 설치하여 亂의 원인이 된 三政의 문란을 바로잡을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지배층이 국내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호도할 수 없는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三政 釐整策은 삼정의 데두리 안에서의 개혁이란 한계내에서 추진되었고, 삼정의 문란을 초래한 정부 대신들이 개혁위원으로 선임되어⁴³⁾ 자신들의 이해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矯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거기다 개혁 실시의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했던 삼남일대의 농민항쟁도 지도력과 조직력, 상호 연대의 결여로 일단 각 지역별로 진압되어갔다. 정부는 윤8월에 이정청을 철폐하고 만다. 농민항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시도는 개혁기구의 설치 4개월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농민항쟁은 다시 확산되어진다.

熱河問安使行의 副使였던 朴珪壽는 清朝의 目下事態를 內治의 문란이 병란을 초래했고 이것이 外夷에게 틈을 주어 外患을 불렀다고 인식했다. 晉州民亂을 조사, 수습하는 과정에서 “內訌이 이같으면 外憂가 두렵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민란의 사후처리에 임했고 개혁을 제안했다. 최고실권자로 정국을 주도하던 金左根은 清朝의 상황을 거울 삼아 국내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여 이를 彌縫하고 있었다. 그는 농민항쟁의 와중에서 박규수의 개혁안을 수락하고 衆論을 모아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자고 하였다. 朝野를 망라하여 광범위한 의견의 수렴 과정을 거쳐 三政의 釐整策을 수립했다. 그러나 목전의 위험이 줄어들자 철저하지 못했던 개혁마저 중단하고 만 것이다.

V. 危機 認識과 對應의 背景

1. 燕行情報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조선정부는 당시의 清朝社會 全般에 관련된 다량의 情報을 燕行使節을 통하여 거의 정기적으로 입수하고 있다. 이는 同時期의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朝鮮支配層의 同時代의 世界 認識의 바탕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情報은 量的으로 豊富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燕行使節의 情報 探知가 一定한 制約下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서 起因한다. 특히 19世紀 中葉은 戰亂期였기 때문에 清朝의 정보 統制가 強化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43) 金容燮 〈哲宗 壬戌年의 應旨三政疏와 그 農業論〉(《韓國史研究》10輯, 1974.) p.132.

赴燕使행의 見聞은 時間과 空間의 兩面에서 限界를 갖는다. 片道 약 50일의 여정을 비교적 제한된 여로로 서울과 北京을 왕래했다. 제한된 時間에 거의 동일한 지역의 見聞으로 한정되어서 정보량이나 다양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 시기에 使臣의 北京 체재는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하였다. 짧은 期間에 번거로운 일정을 소화해내야만 했다. 숙소인 會同館이나 혹은 玉河館에서의 外出도 回數가 제한되고 감시가 딸리는 경우가 많았다.

使臣은 현지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고 物情이 특수한 데다 현지인이 외국인과의 접촉을 꺼려서 정보 탐지가 어려웠다고 자주 말하고 있다. 滿語와 漢語가 가능한 것은 譯官 뿐이었다. 그런데 역관의 言語 능력은 17세기말부터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며, 19세기에 역관의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역관의 商人化도 문제였다.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 무역활동에 주력하는 역관까지 나오게 된다.⁴⁴⁾

使行은 戰亂으로 인한 정보의 統制도 받게 된다. 戰時의 保安을 위한 정보 통제와 함께 帝國의 체면 유지 때문에 淸朝는 정보를 통제하였다. 淸朝의 文字情報에 대한 통제 현상은 太平天國으로 인하여 전란이 확대되고 치열해짐을 반영하여 1854년 이후부터 58년까지 두드러진다. 심지어 개인적인 交遊까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례도 있었다.⁴⁵⁾

使臣의 情報源은 사신의 見聞, 淸政府 官僚, 그리고 〈京報〉였다. 가장 주된 情報源은 京報였다.⁴⁶⁾ 사신의 復命 자료는 대부분이 京報에 의지하고 있었다. 京報 혹은 塘報로 불리는 이 문건은 사신이 복명 자료로 사용하고 나서, 이를 모아 承政院에 보관하고 있음을 보아도 대외정세에 대한 정보의 소스로서 경보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 수 있다. 京報는 淸朝의 철저한 관변문서였다. 따라서 내용과 배포 두 측면에서 淸朝의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했다. 또 京報에는 詔勅이나 上奏文이 그대로 실리기 때문에 사건의 顛末을 균형 있게 전해주지도 않는다.

使臣의 中國觀도 사태의 파악이나 정보의 해석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의 사신은 中國은 廣大한 지역과 複雜多樣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兵亂이 없는 곳도 없고, 없는 때도 없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淸朝大國觀을 갖고 있었다. 朝鮮官人의 이러한 시각은 中國의 兵亂에 대한 認識에도 그대로 전

44) 柳承宙 〈朝鮮後期對淸貿易의 展開過程 -17-18世紀 赴燕譯官의 貿易活動을 中心으로-〉(《白山學報》第8號, 1970) 참조. 이 논문은 譯官의 語學力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45) 徐慶淳 《夢經堂日史》第三篇.

46) 京報에 대해서는 아래 論著를 參照.

臺灣臨時舊慣調查會 《淸國行政法》一卷, 1915.; 《六部成語註解》1940.

萩原淳平 〈明清時代の塘報〉(《田村博士頌壽東洋史論叢》1968.)

지되어서 정확한 정보 탐지와 정세의 인식에 장애가 되고 있었다. 또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 심한 선택의 한계를 지니고 있던 국내의 정치와 사회 경제 상황이 조선 지배층으로 하여금 淸朝의 안정을 회구하도록 하고 있었음도 淸朝 大國觀의 견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제일차 아편전쟁이 국지적인 소요로 인식되거나, 太平軍이 처음부터 한 지방의 騷擾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使臣의 시각과도 무관하지 않다. 또 이러한 先入見이 太平天國의 鬭爭을 끝까지 하나의 巨大한 統一的 움직임으로 파악하는 것을 妨害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사신의 능력과 정보 수집에 대한 열의로 상당 부분을 극복해 낼 수 있었다. 실제로 燕行使節이 탐지해 온 정보 가운데서 이런 제약을 넘어서고 있는 우수한 정보도 산전된다. 또 정밀성이 좀 떨어지는 정보라 하더라도 활용 여하에 따라서 중대한 변화의 양상을 追跡하는데 큰 부족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84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燕行使臣을 통해 들어온 對外情勢에 대한 정보는 일정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조선정부의 정확한 대외정세 인식과 이에 입각한 대응책의 마련에 있어서 충분히 유용한 자료였다고 할 수 있다.

2. 權力構造와 政治狀況

그렇다면 對內外的으로 격변의 시기인 19세기 중엽에 조선정부는 이처럼 유용한 정보를 왜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하고 있는가. 이는 조선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조선정부의 정보 처리 능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당시의 權力構造와 政治狀況을 개관해 보기로 하자. 19세기 前半期의 조선왕조의 정치형태는 정치권력이 소수집단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는 勢道政治였다. 세도정치 시기에도 文政治構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이미 形骸化되어 있었다. 議政府와 六曹의 기능은 변질되고 약화된 반면, 임시적 기구의 성격을 띤 備邊司가 常設機構化하여 국가의 거의 모든 정치적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비변사는 기존의 制度와 慣行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가면서 國政 全般을 장악하였다. 국가의 最高統治機構化한 備邊司가 세도권력의 이해 관계와 사적 이익을 국왕의 동의를 얻어 관철해나가는 마당이 된 것이다.⁴⁷⁾

19세기의 權勢家 = 外戚은 國王의 보호자로서 世道를 자임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의 儀典을 주관하며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또 비변사를

47) 吳宗祿 〈備邊司의 政治的 機能〉(《朝鮮政治史 1800—1863》下, 靑年社, 1990.) 참조.

장악하여 국정 일반을 주도하였고, 政丞職의 측근관료를 통하여 주요한 政事를 처리하였다. 국가의 중대사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은 공개적으로 頂上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반드시 정치의 전면에서 나서지 않고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王의 位相과 王權은 심히 약화되어 있었으나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王의 權威는 오히려 매우 높아져 있다. 집권 세도가문이 일단은 군주의 공식적인 동의나 승인을 바탕으로, 군주의 권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 外戚 權勢家의 권력 장악이 군주의 공식적인 동의 혹은 승인을 바탕으로 국왕의 권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그들이 ‘世道의 自任’이라는 명분을 내걸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세도정치는 조선왕조의 지배체제에서 형식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권력의 出處와 그 基盤은 유력 가문의 권세 장악이 실제로는 지배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가에게 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초극할 수 없게 하였다.⁴⁸⁾ 국왕으로 대표되는 체제를 부정할 경우 자신의 존립 기반은 스스로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合法性을 주장할 수 있는 장치와 구조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안주할 수 있는 터에, 정치의 최종책임이라는 國王의 領域을 일부러 떠안는 위험 부담을 자초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할 의지도 없었다.

세도가문은 국왕의 관념적인 권위를 擬制的으로 고양시킨 후에 그 권위를 권력의 우산으로 삼고 있었다.⁴⁹⁾ 따라서 그들은 현체제를 타도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수도 없었고 새로운 변혁의 물결을 수용하여 체제를 개혁하거나 혁명을 주도할 수 없었다. 보수적인 정치논리와 그 정치모델의 固守도 현실에의 安住 추구, 즉 권세의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내세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주장하는 정치논리나 모델에 충실한 중세적 질서로의 개혁마저도 불가능했다. 체제의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중세적 질서로의 개혁마저도 이를 실천할 경우 명목뿐인 그들의 정당성은 설 자리를 잃게되며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권세가문은 다만 힘이나 상황에 의한 우위를 점하는 상태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政治運營의 논리는 보수논리로 일관하면서 변혁의 물결을 차단하고 政敵의 闖入이나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⁵⁰⁾

이처럼 폐쇄적이고 경직된 정치구조는 체제의 安定이라고 糊塗되었고, 호도된 안정에 충격을 가할 가능성을 가진 정보는 애써 차단되거나 축소되어야 했다. 위기상황에

48) 吳洙彰〈權力集團과 政局運營〉위의 《朝鮮政治史》下. 참조.

49) 오수창, 위의 논문 참조.

50) 박광용〈정치운영론〉(《조선정치사》하.) 참조.

대한 인식은 그 절박성이 목전에 확인되었을 때야 나타나지만 그 대응은 안일하고 소극적이었다. 일정한 제약 속에 탐지된 유용한 정보마저도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정치구조는 연행사절이 정보의 다양성과 정확성에 접근하려는 열의를 감소시킬 素地도 갖고 있었다.

VI. 맺 음 말

두 차례의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異樣船의 출몰과 천주교세의 확대, 동학의 창도와 그 교세의 확장, 임술농민항쟁 등 19세기 중엽 이후의 국내외 정세는 조선왕조의 지배층으로 하여금 정확한 상황 인식과 적절하고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조선정부의 지배층이 대외 위기 정보와 국내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 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제일차 아편전쟁은 아편 문제와 서양의 무력이 조선왕조의 지속적인 관심사였고, 위기로 인식되었으나 정보의 자의적 해석과 전쟁의 결과가 영토의 지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토대로 위기의식은 완화되었고, 아편에 대한 경각심을 더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이차 아편전쟁은 조선왕조를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위기로 인식되었다. 조선정부는 열하문안사와 진위진향사를 파견하여 청조로 하여금 조선이 그 藩屬秩序 안에 있음을 확인시키는 외교활동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내수의 강화라는 종래부터의 위기 극복 정책을 채택하였다. 內修의 궁극 목적은 外攘에 두었지만 그 실천 방안은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이었다. 太平天國에 대한 위기의식은 정보를 조작하고 차단하면서 감추어오다 제이차 아편전쟁으로 이를 더 이상 호도할 수 없게 되자 위기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실제의 객관적 정세와는 상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국내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배층은 현실을 미봉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19세기 중엽, 조선 지배층은 대내외의 정세에 대하여 이를 위기로 인식하고 일정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응은 소극적이었고 목전의 위기가 사라졌다고 보이면 소극적인 대응마저도 금방 중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집권 세도권력에게는 현상을 유지하며 집권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고,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채로 정치의 최종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국왕에게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조선왕조는 변혁과 위기에의 대응력을 키우지 못하고 위기는 상존하는 가운데 개항을 맞아야 했던 것이다.